

전주시의회 의원들, 정례회 5분 발언 잇따라

김윤철 의원, 정밀한 타당성 검토 통한 기관 통합 조속 추진
이보순 의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생활 지원사 권리보장 등 촉구
채영병 의원, 여름철 장마 대비 체계적인 빗물받이 관리 필요
최서연 의원, 시민들 위한 필요 예산 편성 노력·의회 소통 당부

10일 전주시의회 제41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윤철(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의원은 성격이나 지향점이 다른 기관 간의 통합에 있어 정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충분한 검토 없이 통합을 진행하게 된다면 전문인력 유출, 업무 혼란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기관 운영의 효율적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전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한 기관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순(비례대표) 의원은 전주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생활 지원사



김윤철 의원 이보순 의원 채영병 의원 최서연 의원

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는 403명의 생활지원사가 월 12만 원의 활동 지원비를 받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6,145명에 대한 돌봄을 하고 있다"며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

해 고용 안정성 제고, 수당의 실질적인 개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영병(효자2·3·4동) 의원은 여름철 장마에 대비한 체계적인 빗물

받이 관리를 요구했다. 채 의원은 "비 피해를 막기 위한 집중적인 우수를 하수관으로 유출하는 빗물받이는 소홀한 관리로 인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빗물받이 정비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 홍보 등 행정의 장마 대비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서연 의원은 (진북, 인후1·2, 금암1·2동)은 추경안 편성시 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 및 소통을 통한 시민들을 위한 필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의회는 2024년도 전주시 재정 상태에 대해 많은 우려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단일하게 대응했다"며 "그 결과 예산 부족으로 추경 예산안 심의가 7월로 미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을 위한 가장 필요한 예산은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의회와 심도 있는 추경안 편성 논의와 소통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욱기 기자



지난 8일 희망의섬 안전봉사대는 비가 오는 곳엔 날씨에도 서노송동에 있는 전주 도시혁신센터에서 여름철 기력회복을 위하여 '삼계탕나눔'을 전주도시혁신센터 일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 봉사

희망의섬 안전봉사대, 전주 도시혁신센터서 어르신 초청 진행

지난 8일 희망의섬 안전봉사대(이사장 유춘열)는 비가 오는 곳엔 날씨에도 서노송동에 있는 전주 도시혁신센터에서 여름철 기력회복을 위하여 '삼계탕나눔'을 전주도시혁신센터 일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봉사에는 전주 도시혁신센터 직원 및 서노송동 자율방범대장 그리고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희망봉사단 회원 등 40여 명이 참여해 여름 보양식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벌여 저소득층과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삼계탕 250인분을 준비해 훈훈한 이웃사랑을 전했다.

또한 희망의섬 안전봉사대와 결연을 맺고 있는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희망봉사단 회원들이 전주의 교통사고 피해자 20여 가족들에게 삼계탕을 전달하는 봉사활동도 했다.

본 행사를 주관한 희망의섬 안전봉사대 문경관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4년 만에 직접 어르신들을 초

청하여 "영양과 정이 듬뿍 담겨 있는 보양식을 대접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봉사대는 '어르신 건강 UP, 행복 UP' 나눔 활동에 앞장서는 마음이 따뜻한 봉사단체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희망의섬 안전봉사대는 전주시청, 전북경찰청, 전주·진안농협 등의 회원들이 모여 2008년 10월부터 매월 1회씩 회원 가족들이 참여하여 이웃사랑에 앞장서고 있으며 무료 급식 외에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사전 조사 후 동절기 연탄 및 반찬 지원, 김장 봉사, 이불 및 난로 지원 등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이어 전주 도시혁신센터 소영식 통합센터장은 "희망의섬 안전봉사대가 노송동 일원의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이곳 전주 도시혁신센터에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어 감사함을 표시하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장애인일자리 의견청취 간담회 가져

전북형 권리지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과 의견 나뉨

전주시는 10일 전북형 권리지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수행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2024년 전북형 권리지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2024년 전북형 권리지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사)장애인 인권연대, 사)새빛장애인지립생활센터, 사)라엘, 전북우리지역사회지원센터 총 4개의 수행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총 44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권익



전주시는 10일 전북형 권리지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수행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옹호활동,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장애인 인식개선활동 등 유형별 일자리를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하여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재능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하여 장애인과 함께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이외에도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118명, △장애인 복지일자리 225명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 인파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41명, △저소득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25명 등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총 450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전주 호성동 적십자봉사회, 무단투기 쓰레기 정비 나서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적십자봉사회(회장 이영수)는 지난 7일 오산경로당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 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는 적십자봉사회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어 악취 발생 및 위생 저하로 불편을 겪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영수 적십자봉사회장은 "활동에 참여해주신 적십자봉사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환경정비 활동과 무단투기 근절 캠페인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소민호 동장은 "평소 솔선수범하여 환경정비를 위해 힘써주시 회원분들



께 감사를 전하며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단속과 정비 활동을 통해

쾌적한 농촌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효자3동 주민들, 환경정화활동 펼쳐

효자3동 주민센터(동장 양승운)는 10일 주민자치위원회(회장 조지영)와 통장,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자 등 주민 50여 명과 함께 주민자치 특화사업인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위한 마을 환경보호 등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모인 50여 명은 관내 청소 취약지에 대해 쓰레기 줍기 행사와 잡초제거 활동을 펼쳤으며, 지역주민들에게 탄소중립 실천 수칙을 홍보하였다. 또한, 모아진 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한 페트병, 캔류 등은 재분리 배출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의 의미를 더했다.

효자3동의 자생단체와 프로그램 수강자 등 다양한 소속의 주민들이 참여한 이번 활동을 통해 도심 정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일상생활 속 시민의식의 변화를 주는 계



기다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지영 주민자치위원장은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정화활동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등을 꾸준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